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말로우

말로우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Retrieved on December 21, 2009 from news.infoshop.org

kr.theanarchistlibrary.org

“그리스도교세계 Christendom 는 인류가 다시네발로 걷게만들려는노력이다. 또한그리스도교신앙을엮애기위한노력이자, 이것이그리스도교라고주장하면서그것을엮뚱하게만들려는노력이다. 그리스도교세계의그리스도교신앙에서십자가는아이들의장난감말이나나팔처럼우스꽝스러운것이되어버렸다.”(키에르케고르)

정통그리스도교의의견에따르면, 그리스도교의교의는질서, 권위, 국가권력과동의이다. 교회의역사를굉장히가볍게바라보기만하더라도, 로마의제국주의자, 르네상스유럽의전제주의자, 러시아의스탈린주의자, 미국의“민주주의자”들까지, 다양한정치적굴종의체계를확인할수있다. 그리스도교가단지권위를지지하는것뿐아니라, 권위의존재를전제하고있음은분명하다. 칼뱅 (John Calvin) 에게있어서는가장잔혹한폭군도권위의부재보다는나은상태였다. 루터 (Martin Luther) 는농민반란에대한유혈진압을축복한것으로유명하다. 그리스도교와권위와명령의폐지를추구하는아나키즘사이에서그어떤연관성도발견하지못하는것은당연해보인다. 레프톨스토이 (Leo Tolstoy) 는그의그리스도교아나키즘을상술하면서, “나의노력에대한암묵적이지만꾸준한음모론이온다”는불평을하였다. 그럼에도그리스도교가창시된순간부터세속적권위와교회권위모두에반대하는조용한흐름은존재했다. 이흐름은권력의남용에대한우연한시위로그치지않고, 필연적으로아나키적이었다. 그렇기에내가이글을쓰는목적은국가권력의윤리와복음의윤리사이의급진적비호환성을드러내고자함이다. 이것은그리스도교에관한사회학을건설하려는것이아니라, 그리스도교의사회경제학적차원을분리시켜분석하고, 아나키즘만이그리스도교사상과함께할수있는유일한“반정치적정치사상”임을보여주고자함이다. 성경적교리와역사상다양하게존재했던그리스도교아나키즘의운동을자세하게보아야할것이다. 우선, 아나키즘에관한간략한정의를해보도록하자.

기본적으로아나키즘은모든형태의사회적계급체계와공고하고잔혹한구조적권위에대한극단적회의주의라할수있다. 엠마골드만 (Emma Goldman) 은그녀의에세이 〈아나키즘〉 에서아나키즘을“모든정부는폭력위에세워졌고, 그렇기에정부가나쁘고해로울뿐아니라불필요함을말하는이론”이라정의한다. 하지만아나키는이것보다더광범위하다. 아나키즘은권력의본성이필연적으로악질이며, 모든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권위의억압적형태는폭력이나벌칙의협박으로복종을유지한다고바라본다. 루돌프로커 (Rudolf Rocker) 가우아하게설명한것처럼, “권력은파괴적으로밖에작용하지않는다. 모든삶의발현을늘법을이용해강제로구속하고있다. 그지적표현형태는생명없는도그마이며, 그물리적형태는짐승같은무력이다. 그리고그과제를알지못하게함으로써지원자에대해서도무지의낙인을찍고, 원래는최선의재능을부여받았다할지라도지원자를바보에짐승처럼교묘하게가로챈다. 모든일을기계적질서에역지로따르게하고자늘분투하는사람은적어도자기자신을일개기계로만들며, 모든인간적감정을잃어버리게되는것이다.”

했다. 이공동체적구조는공황기를거쳐점차적으로줄어들었으며, 이들은왕에게의충성맹세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끊임없이재배치되었다.

두호보르파의가장급진적인분파였던“자유의아들들”은베레그린의반국가적이고채식주의적인교리를극단적으로표출했다. 베레그린은지상의낙원은오직“원시적조건으로, 아담과이브가잃어버린영적단계로”돌아감으로써만 이루어질것이라고적었다. 베레그린은러시아농민의전통적신비주의에감게빠져있었고, 자유의아들들의나체주의와방화범으로서의명성은오늘날의두호보르파에게는즐거운이야깃거리가아니다. 두호보르파는더이상공동체적구조에서살아가지않지만, 그들의교회는여전히비계급체계적이고반권위주의적으로남아있다.

이처럼, 성경적문구의분석과그리스도교아나키즘의사회학적구현으로부터우리는그리스도교와아나키즘이단시상호보완적일뿐아니라합리주의적아나키즘의이론적근간이그리스도교적반란의역사에그뿌리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자주반복되는경구인“권력은부패한다. 절대권력은절대부패한다”는말은그리스도교와아나키즘모두의중심적안건이다. 이문건의목적은화해를만들어내고자함이다. 하지만나는아나키즘이가끔은모든종교를광적으로적대한다는것을, 바쿠닌 (Mikhail Bakunin) 이볼테르 (Voltaire) 의언명을뒤집어말한것처럼“신이존재한다면, 그를철폐할필요가있다”고본다는것을일부러무시했다. 사실많은아나키스트들, 특히초기아나키스트들은신을모든권위가그정당성의원천으로두는우월한존재라고바라보았다. 그리고개인이신안에서스스로를일으켜세우지않으면그들은여전히노예일것이라고여겼다. 이것은신성한권위의본성에대한또다른논의를요할것이다. 그러나나는자크엘뤼이그의저서『그리스도교와마르크스주의』를통해“신도주인도없다”와“나는전능하신아버지하느님을믿는다”는말사이의호환성을충분히다루었다고생각한다. 이글에서는그리스도교는역사적으로국가를인정하게끔왜곡되어왔고, 이러한왜곡의파괴적결과물들이아말로초기아나키스트들이공격한것이라고밝히는것만으로도충분할것이라보인다.

그리스도교아나키즘과과학적아나키즘사이의지적연결은분명히중대하게존재한다. 인간본성에대한그리스도교적인식은사회적권력관계의총체적해소와같은아나키즘의유토피아적경향성의균형추가될수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과학적아나키즘은그리스도교가정통교리에빠져사회변혁을거부하지않게끔지렛대가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변증법은아나키즘이그리스도교가필연적으로확고하고공고한정치권력구조의유지를전제하지않는다는것을인지하고, 그리스도교가아나키즘이유일하게성경과합치하는정치적입장임을인지할때에만가능하다. 그럴때에만그리스도인들이아나키스트들의옆에함께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아나키즘은사회적권위체계의철폐가평등과개인적자유의를사회를확립하는데필수적이라는입장을고수한다. 이러한사회를어떻게건설할것인가에관한이론은복잡하고다양하지만, 그것을묵을수있는가장공동된요소는국가권위주의를자유로운개인들의비통치적협동으로대체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이러한대체는자치적이고, 탈중심적이며, 직접민주주의적인총회에기초한공동체와그연방의형태를가진다. 이풀뿌리공동체는자기조력, 상호보조, 자발적협동의기능을할것이다. 그리고연방을통해지역의다른자치공동체들과협동적으로, 초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연결될것이다. 본질적으로, 주요생산수단의사회화와경제적자주경영이핵심적과제가된다. 아나키즘의목적은현대국가의피라미드형계급체계를유기적구체로바꾸어내는것이고, 권력을진정으로해소하는것이다. 이것들이아나키스트사상의근본적원칙으로서이글의핵심논제가될것이다.

이제동전의뒷면을한번보자. 이논의는신약과구약에담긴성경적자료에관한(아주) 제한적인분석으로시작한다. 사무엘상을보면우리는이스라엘의사회구조가전통적으로아나키스트적이었음을알수있다. 이집트로부터해방된이후, 이스라엘에는부족공 clan princes 도, 귀족가문도모두파괴되거나사라졌다. 이스라엘의신은그홀로유일하게이스라엘의가장높은자라고선언했다. 하지만이것은신정아니었다. 야훼는지상에어떠한대리인도보내지않았고, 부족총회가공동체적결정을만들었다. 재난의시기에야훼는“판관”을임명하여이스라엘을이끌게하였지만이들은영구적인권위를가지지못했고, 그역할을다한후에는스스로해산하여인민에합류했다. 이스라엘인들은신의뜻에반하여전제군주정을결정했다. 그들은효율성을위해, 다른지배적문명과맞맞추어왕을원했다. 야훼는그들의요구를수용하였지만그들에게정치권력의본성에대한굉장히정확한경고를남겼다.

“왕이너희를어떻게다스릴것인지알려주겠다. 그는너희아들들을데려다가병거대나기마대의일을시키고병거앞에서달리게할것이다. 천인대장이나오십인대장을시키기도하고, 그의발을갈거나추수를하게할것이며보병의무기와기병의장비를만들게도할것이다. 또너희말들을데려다가향료를만들게도하고요리나과자를굽는일도시킬것이다. 너희의발과포도원과올리브밭에서좋은것을빼앗아자기신하들에게줄것이며, 곡식과포도에서도십분의일세를거두어자기의내시와신하들에게줄것이다. 너희의남종여종을데려다가일을시키고좋은소와나귀를끌어다가부려먹고양떼에서도십분의일세를거두어갈것이며너희들마저종으로삼으리라.”(사무엘상 8:11-17)

자크엘뤼 (Jacques Ellul) 이쓴것처럼, 이구절은세가지메시지로압축된다. “(1) 정치적권력은신에대한불신과거부에서비롯한다. (2) 정치적권력은언제나독재적이고과도하며, 불공정하다. (3) 이스라엘의정치권력은주변왕국들에대한모방과순응으로부터확립되었다.”(『그리스도교와마르크스주의

L'idéologie marxiste chrétienne』) 나는 이것에 더하여 사회적 계급 체계는 그 존재 자체로 착취와 계급 분화와 불가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정통성 부인이다. 베르나드 엘러 (Vernard Eller) 는 구약에서 전제정이 어떻게 대변되는지를 지적한다. 백성을 배불리고, 전쟁을 수행하며, 통치를 강화하는 등의 명군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적이며 불공정하고 폭군적인 학살자로 등장한다. 반면, 왕권이 약하고, 행정력이 흔들리며, 전쟁에 지고 백성의 부를 상실한 왕들이 위대한 왕이라 정의된다. 엘러는 이에 대하여 “이는 장기적으로 유일하게 성립 가능한 권력은 가장 약한 것이라는 의미이거나, 혹은 진실한 사람은 나쁜 정치 적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모든 왕은 그리스도교 신화에서 가장 카리스마적 존재인 예언자 prophet 와 함께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현존 권위에 대한 가장 가혹한 비판자였으며, 언제나 그 권위에 의한 탄압을 겪었다. (이사야, 예제키엘, 다니엘, 엘리야) 이 모든 것들은 반전 제주의적이고 반 국가주의적인 감정의 표현이라 하겠다.

신약으로 들어 가면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성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지지한다. 바울로의 약명 높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1) 를 보라. 다른 경향성은 권력에 대해 확신하고 격렬한 적대심을 보여준다. 이 경향성은 주로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성서 해석 학자들은 국가에 관한 신학에 있어 성경의 몇몇 독립적 구절들, 이를테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 장이나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의 재판 등을 들어 계급 체계적 지배의 신성한 합법성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전에, 예수 스스로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급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바라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가 공생할을 시작하였을 때 사탄의 유혹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악마는 예수를 세 번 유혹하였고, 그중 마지막 유혹은 의미적이다. 악마는 다시 아 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마태오의 복음서 4:8-9)

혹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루가의 복음서 4:6-7) 엘러가 그의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서들은 아마도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목표로 적혔을 것이기에, 복음서에서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마나 헤로데 왕조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정치 적 왕국은 사탄의 것이며, 예수의 직접적인 추종자들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 적 기구 (오늘날 우리가 국가라 부르는 것) 는 악마에게 속한 것으로서, 권력을 전자들은 악마로부터 그 권력을 받은 것이었다.

는 동맹을 체결했다. 그리고 디거스는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소극적 저항을 실천했지만, 결국 격렬히 분산 당했다. 물론 이 운동은 당대에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윈스턴 리의 저서에 담긴 박식함과 철학은 현대의 사회주의 자들과 아나키스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윈스턴 리와 비슷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로서, 어떠한 대중주의 조직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개인은 톨스토이다. 톨스토이의 그리스도교 아나키즘, 혹은 “비저항 (비폭력 저항)” 은 종교적 저항에 대한 러시아의 풍족한 역사의 일부로써, 정의와 (영적인) 아름다움, 선함, 보편적 가치에의 복무를 둘러싼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모든 권력을 악이라고 받아들이며, 모든 폭력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라는 지점에도 달했다. 톨스토이는 국가와 법률이 폭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권위를 부정했으며 모든 억압적 기구의 철폐가 사회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국가의 요구에 참여하기를 회피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톨스토이는 “본질적인 논쟁자” 였고, 그의 국가 권위에 대한 거부 는 예수의 말과 달아 있었다.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의지를 대리할 수도 없고, 임시적인 인간의 법률에 복종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거나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것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법칙이 그에게 무엇을 요할지 알 수 없고, 오직 그 삶의 목적에만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법률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면, 그것은 신의 법칙이 스스로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가지다.”

그렇기에 톨스토이적 코뮌은 권력을 철폐하고 비 억압적인 인간 관계에 근거한 유기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일부 코뮌들은 성공적이었고, 수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레트루스가 말했듯, “지주들이 그들의 토지를 코뮌에 주고, 그보헤미안 동료들을 도시로 받아들여, ‘그들의’ 농민들이 옛 사회의 자궁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도록 강제한, 희극적이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사건” 이었고, 공교회와 차르 권위의 짧은 명령으로 순식간에 압제되었다.

당대의 러시아에서 적극적이었던 유사한 그룹은 원시주의자 아나키스트였던 두호보르파, 혹은 “영적인 싸움꾼들” 이었다. 종교적으로 예카테리나 대제가 진행한 정교회 개혁에 반대했다. 하지만 두호보르파 운동은 1895 년 그들이 징병을 거부했을 때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비폭력은 그들의 철학에서 핵심적 요소를 차지했고, 그들은 차르와 정교회는 신의 눈에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호보르파는 톨스토이를 계승했고, 톨스토이의 저작들은 운동의 지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두호보르파가 국가적 처벌을 피해 캐나다로 피난할 때, 톨스토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두호보르파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시민권의 획득과 사유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독립파, 공동체주의자, 그리고 급진적인 “자유 의 아들들 Sons of Freedom” 이 그것이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실질적 지도자 프트르 베레그린 (Peter Veregin) 아래에서 놀라운 풍요의 한때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주의적 경제 체계는 상당한 부를 창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아닌 사회혁명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디거스의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탠리 (Gerrard Winstanley) 는 마치 톨스토이가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이성적 원칙을 인지했다. 정확하게는, 톨스토이가 윈스탠리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성은 어디에 머무는가? 이성은 모든 창조물 안에, 본질적으로, 특히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성적 창조물이라 불린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이다. 이성이 인간을 이끌게 두면 그는 다른 창조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그에게, ‘오늘 너의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그를 먹이고 옷 입힐지 어다. 네가 내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윈스탠리에게 사유재산 (특히 농업 경제에서 “주된 생산 수단”이었던 토지) 는 모든 부의 원천이었으며, 그렇기에 “모든 전쟁, 학살, 도둑질, 예측적 법령의 원인으로써 인간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었다. 사유재산은 인류를, 민족을 분할하고 빈번한 전쟁의 조건을 만들어 이로써 국가가 번창하게 한다. 윈스탠리는 단지 주인과 치안판사뿐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들 역시 “그 안에 압제적 주인을 가지고 있어, 그들 아래에 있는 자 (부인과 자식) 들 역시 자유의 축복을 나눌 동등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편적 자유라 불렀고, 그의 가르침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회의 상을 그려냈다. 윈스탠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와 같이 국가가 오직 최종 심의 법정 정도로만 국한되는 사회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윈스탠리의 말 일부는 위대한 19 세기 아나키스트들과 그들이 그린 사회적 자유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보편적 평등이 모든 인간 사이에서 떠오를 때, 그 누구도 어떠한 창조물이 자신의 것이라거나 너의 것이라 말할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나의 일이고 저 것이 너의 일이라고 말할지 못할 것이다. 모두는 자신의 손으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축복은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옥수수나 가축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그것을 아무 창고에서나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판매나 구매는 없어야 하고, 가격과 시장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두는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즐겁게 손을 보아야 할 것이고, 서로를 도와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지배할 수는 없어야 하고, 모든 이는 스스로의 주인이자, 동시에 올바름의, 이성의, 평등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 원칙은 곧 주님이시고, 모든 이의 안에 머물며, 그를 이끌어야 한다.”

윈스탠리는 극단적 평화주의자였고, 평화로운 예시를 통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약 디거스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고 공유지와 황무지를 경작할 수 있다면, 사랑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빈자와 부자를 아울러 모든 영국 사회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디거스는 직접 행동의 한 종류를 사용했다. 그들은 남부 잉글랜드의 미사용지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시작했다. 지역의 지주들과 국가 권위는 이 자급자족적 소규모 집단에 대항하

정치적 권위에 관한 예수의 다른 발언은 『마태오의 복음서』 20:20-2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몇몇 이들은 예수가 권력을 확보하고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배대 오라는 남자의 부인이 그녀의 두 아들이야고와 요한을 예수에게 보이고는 그들이 천국에서 예수의 오른 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결국 야고와 요한이 지도적이고 권위적인 위치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예수는 먼저 그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는,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옳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온 것이다.” (마태오 20:25-28)

위에 언급한 로커의 인용과 비교해 보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치 체제는 그 신민들을 찍어누르며, 압제가 아닌 정치적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예수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단지 기초적 합의만이 존재할 뿐이다. 성경에는 비슷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의 부정 요소들이 있다. 특히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 부분이 그러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 국가와 신전 사제들에 관한 조롱을 읽을 수 있다. 네개의 복음서에는 다소 간 차이가 있지만, 엘퀼은 이에 대해 “예수가 침묵하건, 권력자들을 비난하건, 그들을 도발하건 간에, 예수는 신의 권위 외 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고 적는다. 카를 바르트 (Karl Barth) 와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판결에서 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판결을 합법적이라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이로부터 국가 권력의 기저를 발견한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가 말한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요한 19:11) 에 근거한다. 우리가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과 완전히 분리시켜 보지 않는 이상, 이 구절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 권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지 신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예수가 이전에 말한 바, 그의 재판에 “어둠이 판을 치” 고 있다 (루가 22:52) 는 것과 합치한다. 무엇보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권위와 마주한 예수에 관한 모든 문서는 미묘한 조롱, 역설, 비협조, 무심함과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예수는 분명하게 될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는 전적으로 톨스토이적 Tolstoian 아나키스트였다.

성경은 꾸준히 정치에 대해 거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의 묵시록』 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표현된다. 묵시록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 논쟁적인 책이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묵시록이 종말에 대한 예언적 표현인가를 두고 다소간의 다툼이 있다. 굳이 분석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계시록이 정치 권력의 본질에 의한 인류의 불가피한 자기 파괴를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검은 드문 붉은 말의 기

수로 (그는전쟁을일으키고, 권력을행사하며, 이로써사람들이서로죽고죽이게 한다.),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을대변하는바빌론의몰락으로드러난다.

그러므로우리는성경이정치권력을부정하는체계를가지고있음을, 정치권력의유효성과정당성의결여를증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는이러한맥락상에서로마서 13 상과같은일부독립적구절을, 그리스도교국가들이꾸준히지배체계외정치적지배의기저로구체화해온구절들을바라보아야한다.

“하느님께서주시지않은권위는하나도없고세상의모든권위는다하느님께서세워주신것이기때문입니다.”는말은정치적권위에관한결정적인말로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그진정한의미로받아들여야한다. 이말은그리스도인들이지배적권력에의해폭력적으로억압되던당시사랑을행할방식을찾는것이였다.

그렇기에필연적으로신약과구약은모두꾸준히정치권력을거부한다. 어떠한권력도스스로정당성을가질수없다. 그리고그성격상, 정치적권력은언제나신의윤리와모순될수밖에없다. 그렇기에그리스도인들은언제나정치권력을거부하고, 도전하며, 반대해야마땅하다. 그리스도교국가들이항상이가르침을뒤집고, 복무와권력사이의차이를모호하게만들며, 복음과국가사이의급진적대敵對를거부하여왔음은의심할여지가없다. 그럼에도교회의역사를통틀어, 옹호한권위의비非정당성을급진적으로재확인하였기에아나키스트적인운동들은산발적으로일어나왔다. 머레이북친 (Murray Bookchin) 은아나키스트사상의원천은그리스도교에서찾을수있다고인정한다. 그리고조지우드콕 (George Woodcock) 은아나키즘의뿌리를 14 세기의이단적천년왕국론자 heretical millenarian Christian sects 로상정한다.

천년왕국운동은개혁기에발발하여, 봉건제가해체되고가장낮은계급이농노제의시행에대해점점더반란적인상황이되어가던시기의유럽에퍼져나갔다. 천년왕국론적그리스도교는넓게보자면국가와교회의권력에직접적으로도전하고, 종말론적 apocalyptic 공동체에기초한사회를만들고자분투한종말론적공동체주의운동이라고할수있다. 케네스렉스로스 (Kenneth Rexroth) 는“우리는이거대한영적파도를무언가새로운것이아니라, 옛것의재발견이라생각해야한다. 교조적인구성체도, 신비주의적신학도, 교황과교회에맞서투쟁했다는선정적역사로써도아니라, 삶의방식으로받아들여야한다”고말한다. 이분파의뿌리는성프란치스코 (Saint Francis) 나존볼 (John Ball) 과같은개인들의사상으로부터, 자유정신의형제회 The Free Spirit Brethren 나후스전쟁 Hussite Wars 에서부터비롯한다. 하지만이글에서나는특히아나키스트적인세가지운동에집중하고자한다. 재세례파 the Anabaptists 운동, 디거스 Diggers 운동, 두호보르파 Doukhobors 운동이그것이다.

16 세기초, 재세례파공동체의소규모비밀집회소는북쪽과서쪽독일전역에퍼져나갔다. 재세례파는국정교회 (國定敎會, the established Church) 만이세례성과성변화 (聖變化, transubstantiation) 를주관할수있다는권위에대한공격이였다. 1534 년, 윈스터시는재세례파코원이되였다. 로마가톨릭

교인들과루터교인들 Lutherans 은도시에서추방되었고, 그자리는봉건영지에서가해지는처벌로부터도망쳐나온재세례파난민들로채워졌다. 윈스터시의경제구조는코원주의적이였다. 생산물의공동체소유가실현되었고, 현금, 보석, 귀금속으로구성된자산은공동자산이되였다. 생산의코원화역시도입되였다. 아나키스트적“선물경제 gift economy”를통해생활에필수적인노동을하는길드구성원들은임금을받지않고일하고, 그생산물을공동자산에편입시킨후, 그공동체자산에서자신이필요로하는만큼을자유롭게가져갈수있었다. 하지만자칭윈스터의지도자얀보켈슨 (Jan Bockelson) 은형제단내의평등을설파했고, 코원은빠르게천년왕국론적신학을가지게되였다. 보켈슨은엄격한법령들을시행했고, 참수형에대한성애적집착을보여주었다. 윈스터는결국봉건영주들의통합군에의해무너졌고, 대부분의인민들이학살당했다. 윈스터의내부권력구조가권위주의적이었지만, 그들의교회와국가의권위에대한관계는의심의여지없이아나키스트적이였다. 윈스터의목표는완전한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자치였다. 그리고이것이재세례파운동이강조한윤리였다.

윈스터이후재세례파운동은크게셋으로나뉘었다. 충성서약도, 관청도, 징병도거부하였지만코원주의를받아들이지않은평화주의자들, 코원주의를받아들이는평화주의자들, 그리고끝없는탄압끝에서실상명종한투사적천년왕국주의자들. 윈스터이후수년간재세례파는사냥당하는방랑자들이였다. 그리고그들이어떠한형태로도공동체주의를실현하는것은어려운일이였다. 후터파 Hutterite 와메노파 Mennonite 집단들은모라비아 Moravia 에서그들을불쌍히여긴귀족들의보호를받을수있었고, 슬로바키아와보헤미아에서외곽지의주거구역을유지할수있었다. 당대의기준에비하면그공동체들은놀라울정도로평등주의적인방식으로조직되었고, 국가와교회를“평범한행정체가역겨울정도로성장한것”이라보았다. 역사적으로가장오래생존한공동체주의사회인아우스트리츠 Austerlitz 에서는생산과소비의영역에서코원주의가성공적으로작동했다. 아우스트리츠공동체는스스로의학교를만들었고 (물론고등교육은거부되었지만), 보육과공중보건을사회화하였으며, 그들의생산과분배의체계에서상당한잉여자원을만들었다. 제국과교회의헤게모니에대한재세례파의부정은궁극적으로그들이 1622 년모라비아에서추방되는결과를낳았다. 그리고그들은동유럽과러시아전역으로흩어졌다. 또한그들중다수는미국과캐나다로이민을떠났고, 퀘이커 the Quakers, 메노파, 아미쉬 the Amish 공동체와같이일시적으로나마아나르코코원주의적공동체들을만들었다.

이운동들은경제적, 정치적거부를하나로묶어내었다는장기적으로중요한결과를가지고있었다. 그리고이태도는영국내전기기의아나키즘적그리스도교운동과비슷하다. 이러한계급투쟁의조건에서제 5 왕국파 the Fifth Monarchy Men, 수평파 the Levellers, 소요파 the Ranters 등의급진적집단들이, 무엇보다도진정한최초의전기 proto 아나키스트라할수있는디거스가등장하게된다. 디거스는 19 세기의아나키스트들처럼정치적, 경제적권력을인식하였고,